

근로자들의 '설' 더 우울해졌다

광주 1월 체불임금 사업장 561곳... 전년보다 20% 증가 여수 기업 22% 상여금 지급 못해... 대기업과 격차 커져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역 기업들의 명절이 벌써 엿갈린다. 한쪽에선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는 형편이고, 다른 한쪽에선 경영난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기업들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물론, 설 선물, 충분한 휴가, 생산을 독려하는 구호도 요란하다.

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은 561곳으로 전년과 같은 기간(442곳)보다 늘었다. 임금을 제때 못받는 근로자 수와 체불액도 늘었다.

1월 말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1218명으로, 체불액도 47억36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6명의 근로자가 39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마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지 감안하면 체불임금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노동청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 상여금도 비슷하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여수지역 기업체 설휴무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수지역 기업 78.6%만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답했다.

21.5%는 지급할 계획이 없고 이들 중 16.7%는 경영난(자금 부족), 8.3%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당장, 금호타이어의 경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생산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명절 상여금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 직원 5000여명의 1월 급여(190억원)가 여태껏 지급되지 못한다. 생산직 직원들이 받아야 할 1월 상여금(110억원)도 지급되지 못한 탓이다. 12월 급여가 지난 2월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명절 상여금을 제때 지급할 지 여부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설 선물을 지급키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전체 7000여명이 직원들이 1인당 25만원(온누리상품권 10만원)의 설 선물을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또 모든 협력업체 납품대금 1조3964억원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전 조기 지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개 협력사다.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들 50곳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이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9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나머지 하청업체들도 조기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53.31 (-38.44)
- ↓ 금리 (국고채 3년) 2.25% (-0.03)
- ↓ 코스닥 858.17 (-0.05)
- ↑ 환율 (USD) 1091.50원 (+3.00)



농협전남본부 안전농산물 공급 협약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6일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농산물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업 판매회사에 출하하기 전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 등을 대폭 확대,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한파 녹이는 나눔 설 맞이 아동시설에 위문품·성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과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 회장단은 6일 오전 이웃사랑 뜻을 모아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양육시설인 동구 소재 '광주일맥원'과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으며,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명절 선물세트 외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아동들을 격려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 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현재 2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사회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화산업 코스닥 상장 검토...지역 재계 '관심'

'무안 CC 운영' 골프장 업체 첫...리조트 개발 계획도

무안CC를 운영하는 남화산업이 코스닥 상장을 검토중이다. 골프장 운영업체로는 처음인데다, 향후 리조트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화산업은 "올해 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상반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계획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혀 상장 의지가 임한다.

남화산업은 1997년 9월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시작해 18홀(1999년), 27홀(2001년), 36홀(2003년), 54홀(2007년) 규모로 키운 전남 최대 골프장으로 꼽힌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를 전남 개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장할 경우 순이익률이 30% 수준인 골프장 사업 특성상 기업가치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화산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70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남화토건이 29.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남화산업 상장시 남화토건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도 남화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남화산업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리조트를 개발, 골프장 이용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리조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벤츠 1월 수입차 판매 1위

지난해 수입차 시장 왕좌에 오른 메르세데스-벤츠가 올해 첫 달에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벤츠는 1월에 총 7509대를 팔아 BMW(5407대)를 제치고 브랜드별 등록대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렉서스(1236대)였고 포드(1007대), 도요타(928대), 볼보(849대), 랜드로버(726대), 포르쉐(535대) 등이 뒤를 이었다.

벤츠는 베스트셀링 모델 순위에서도 6개월 만에 1위를 되찾았다.

/연합뉴스

한전KDN 사장 박성철씨·감사 이오석씨

한전KDN은 6일 주주총회를 거쳐 신입사장으로 박성철 전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박성철 사장은 광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전에 입사한 뒤에는 한전 서울지역본부 서부지사장과 성남지사장, 신성장동력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또 한전KDN은 신임 감사로 이오석 한국전기기술포럼 광주전남도회 회



박성철 사장 이오석 감사

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이오석 감사는 한국안전관리전력공단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